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벅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 1절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예배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예배순서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상의 뜻을 기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다함께

기 도 ----- 가족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17장 20~21절 가족중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설 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인도자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559장) 다함께

마침기도 ----- 인도자

평화와 축복의 인사 ----- 다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가게 될 장소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 본향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임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늘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안을 되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에 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가정은 생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사라면 나는 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는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